



안규철. 움직이는 벽. 각 180×600×20cm. 2014

‘실패’를 둘러싼 세계의 역설에 대한 질문

안규철,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하이트컬렉션 / 8. 29-12. 13

전시제목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작가가 스웨덴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뢰머(Tomas Tranströmer)의 <작은 잎(Leaflet)>이라는 시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며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We see all and nothing)”라는 문장에서 고안해낸 것으로, 인간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공회전하는 현상, 즉 ‘실패’를 둘러싼 세계의 역설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작가는 작가 노트에서 이렇게 모든 결과가 0이라면, “어떤 결과에 이르렀다는 의지 자체를 제거해보는 것, 삶을 ‘살아간다’는 과정 자체로 환원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 작품들도 일은 계속되지만, 결과가 없고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만 그 실패의 과정에 존재하는 노동과 시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헛수고인 듯 보이는 작품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거울을 모아 빛을 반사해 달의 형상을 만든 <달을 그리는 법>(2014), 스웨터의 실을 풀어 그 실로 다시 새로 스웨터를 짠 <두 벌의 스웨터>(2014), 나란히 마주 보고 선 두 벽이 각각 반대방향을 향해 평행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벽>(2014) 등과 같은 것들이다. <여덟 개의 공>(2014)에서 야구공, 골프공, 농구공, 축구공 등이 각각 다른 높이로 튀어 오른다는 당연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의 결과가 제로가 되는 것, 헛수고, 공회전,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것,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실패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그리하여 그 실패의 과정에 투여된 노동과 시간이 온전히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규철의 지난 35년간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도록 주요 비평문, 작가의 글, 그리고 초기작부터 신작들까지를 총망라한 도판에 더해, 그의 작업을 텍스트, 오브제, 건축적 공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새로운 비평문들과 작가의 글을 새로이 추가한 도록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오는 9월 앤솔로지 형식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공연 전경

바람과 뜻으로 새기다

풍정, 각(風情, 刻)
북촌문화센터(구 민흥기 가옥) / 8. 15

1921년에 지어진 북촌문화센터(구 민흥기 가옥)에 어느 날 무용수와 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때는 태양이 몸을 낮추며 비로소 한낮의 열기가 식기 시작할 무렵이다. 사랑방(#인트로)으로부터 그 공간에 잠자고 있는 모든 것을 깨우는 리코더 연주로 공연은 시작된다. 이윽고 안방(#1)에서 남녀 듀엣, 작은마당(#2)에서 독무, 사당(#3)에서 듀오, 큰마당(#4)에서 3인무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작은마당, 안방, 큰마당, 별당을 오가며 출연자 전원의 군무로 막이 내린다.

바람 풍(風)에 뜻 정(情) 그리고 새길 각(刻)자가 합쳐져 <풍정, 각>이라는 제목을 단 이 장소-특정적 무용공연 프로젝트는 국내외 무대에서 무용수, 안무가로서 활동해 왔고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전자음악, 건축, 애니메이션, 오페라, 거리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와 교류를 해온 송주원이 공연 기획, 안무, 예술 감독을 맡아 출연도 직접하며 연출한 작품이다. 공영선, 김우진, 손나예, 장홍서, 정정아, 최진한, 표상만 등의 무용수들이 출연했고, 장면마다 김보라(정가), 진성은(핸드팬), 최세나(리코더), 최정우(기타)의 연주가 진행되었다.

공연 장소인 한옥이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옥 공간을 리서치하고 이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스토리텔링을 거쳐 모든 안무가 제작됐다. 그뿐만 아니라 한옥은 전통적 형태로 무용을 공연하는 극장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움직임과 소리, 관객을 담아내는 무대, 극장의 역할도 담당했다. 무용수들의 몸은 채와 채 사이, 마당을 지나 사랑채와 안채, 사당을 거닐었다. 신체 크기, 넓이, 가동 범위, 호흡, 이동 속도 등이 공간의 드라마와 질감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관객들은 공감각적 요소와 열린 구조를 심분 활용한 공간 속에서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섬세하게 총동원해 이 공연을 100% 즐겼다. <풍정, 각>은 한편의 공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장소와 깊게 만날 수 있는 장이었다.

앞으로 이 공연을 바탕으로 한 영상(김지현), 사진(한홍훈), 일러스트(최진영)의 기록물이 제작되며 지속적인 아카이빙을 통한 참여자와 관람자의 소통 및 공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10월 중에는 이태원 MMMG(10월 10일)와 서울도서관(미정)에서 장소-특정적 무용 공연이 두 차례 이어질 예정이다.